

建築과 電氣와 生活

(電氣會館 設計를 마치고)

李喜泰建築研究所 所長

李 喜 泰

建築이 한 나라의 文明의 尺度라고들 한다. 再言할 必要도 없이 먼 옛날부터 洋의 東西를 莫論하고 이것은 事實이었다. 希臘의 神殿, 로마의 伽藍 等等 人類文化의 燦爛한 빛은 오늘까지도 자랑스러운 遺産으로서 繼承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永遠히 繼承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人類社會에서 高度로 發達된 科學의 威力은 차츰 이러한 傳統의인 美的 建築에 크나 적으나 뚜렷한 變化를 招來하고 있고 人間의 藝術感情에 異質의인 要素를 불어넣고 있다는 事實 또한 누구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即 오늘날의 우리 社會에다 歷史上 燦爛히 빛나고 우리의 모든 美意識을 充足시켜 줄 수 있다는 希臘의 神殿 같은 建築을 새로이 세워 놓았다고 假定했을 때 人間은 그 造型 自體에는 美的인 共感を 느낄 것이나 果然 그것이 現代의 高度로 빠른 時空의 文化感覺에 滿足을 줄 수 있을 것이나 하는에는 筆者는 懷疑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結局 現代建築이란 人間이 生活를 營爲하는데 必要한 工學的 即 科學的, 造型의인 結晶體라야만 되지 않을까? 제 아무리 훌륭한 美的 建築이 세워진들 現代의 科學, 그 中에서도 特別히 電氣와 같은 要素가 缺如된다면 그것은 한낱 機材의 蓄積에 지나지 않으며 有機的인 建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要컨데 現代建築은 視覺的인 面에 呼訴하는 造型의 要素와 이를 充分히 人間生活과 關涉시키는 內在的인 要素가 綜合됨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燦爛한 建築藝術로서 그 生命을 다한다 할 것이다.

筆者가 最近 韓國 最初의 電氣會館의 設計를 마치게 된 것을 큰 榮光으로 생각하며 이 電氣會館이 세워짐으로써 우리의 後進的인 生活이나마 하루 速히 文化的인 發展을 이룩하여 『人間이 世上에 태어

날 때에는 한 個의 寢台와 한 個의 椅子를 必然的으로 要求하게 되며 當然히 가져야 한다』는 西歐人들의 思考方式은 一旦 꿈 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우리 韓國 사람도 하루 速히 電氣의 惠澤을 고르게 받게 되어 日常生活의 必需品으로서 韓國 全城 어디에 가나 電氣불을 붙 수 있게 되는 날이 하루 速히 到來할 것을 希願하는 바이다.

이번 電氣會館 設計를 끝냄에 있어서 筆者는 한 사람의 建築家로서 若干의 不滿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建物 自體가 「電氣」會館이니 만큼 좀 더 電氣的인 要素를 마음대로 建物에 注入해서 하나의 有機體를 만들고 싶었으나 制約된 工事費 豫算으로는 到底히 이를 充足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會館이 一般 建物과는 全然色다른 存在로서 서울이라는 舊態依然하고 半未開的인 都市에서 뚜렷한 存在로서 律動하는 하나의 生命體가 되게끔 만들어 보고자 多角度로 腐心을 했다. 即 晝間에는 太陽下에서 大地에 君臨하는 造型體로 하고 夜間에는 電氣의 힘을 빌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神秘로우면서도 어떤 浪漫을 꿈꿀 수 있는 效果를 圖謀하고자 最大의 努力을 했다. 勿論 이것은 建築家로서 筆者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꿈이며 現實的으로는 이 建物이 完成된 後에 많은 市民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建築家로서의 作家的인 成功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現代의 世界에서 우리가 文化生活을 營爲하고 文明의 惠澤을 입고자 하려면 무엇보다도 電氣를 빼 놓고는 그 아무것도 論할 수 없을 만큼 文明의 利器로서의 電氣의 比重은 크다. 韓國에 最初로 세워질 電氣會館은 비록 그 規模는 크지 못하나 이것이

完成되었을 때의 意義와 役割이란 매우 큰 것으로 期待되는 것이다. 우리의 지금 形便으로는 豪華로운 것을 바랄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韓國 唯一의 電氣會館이라고 設計를 마치고 나니 制約된 豫算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마음대로 特徵있는 設計를 하지 못한 不滿 또한 누를 길 없다(勿論 建築家로서의 意慾에서 오는 것이겠지만). 先進 外國에서는 現代建築이라고 불릴 수 있는 建物이 세워질 때에는 그 建築의 効用性 即 使用目的이 무엇이란간에 設備를 完全히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現代建築의 範疇에서 벗어난 것으로 看做된다. 建築에 있어서의 設備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建築 自體를 除外한 照明, 衛生, 暖房, 冷房, 濕度調節, 換氣 等 人間이 現代의 文化生活을 營爲하는데 必要한 모든 設備를 말하는 것인데 建築의 用途에 따라서 多少의 差異는 있을망정 建築 自體의 工事費와 比等한 費用을 設備費로 充當해야 한 비로소 建築 自體의 아름다운 造型美와 內在의 有機性을 融和시켜서 하나의 完全한 「建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比해서 筆者가 이번에 設計한 電氣會館의 建築工事費와 設備工事費의 比率는 建築 75% 設備 25%라는 매우 기우어진 比率인 것이다. 勿論 建築工事費 自體도 우리 나라에서란 可能的 低廉한 豫算인 것이다. 이러한 貧弱한 設備豫算의 태두리 안에서 그래도 무엇인지 하나의 有機的인 綜合體를 찾아 보고자 가진 苦心을 아끼지 않는 것이 韓國의 建築家들의 生態인 것이다.

電氣가 建築, 나아가서는 人間生活에 미치는 影響이란 限없이 큰 것이겠지만 여기서는 아주 가까운 우리의 周邊에서 平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色다른 問題에 言及해 보고자 한다. 筆者가 美國 各地를 旅行할 때 그곳 美國人 親知들의 住宅을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짧은 時間이나마 美國式 生活도 같이 해 보았는데 놀라운 것은 美國人 家庭에서 住宅照明用으로 螢光燈을 全然 使用치 아니하고 우리가 옛날에 쓰던 白熱電球를 쓰고 있다는 事實을 發見한 것이다. 照明手段으로서 瓦斯燈 다음에 電球를 使用케 된 것도 꽤 오래 前부터의 일인데 近來에 와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螢光燈으로 變遷해 온 것은 周知의 事實이며 더욱 우리 나라에서는 電力不足이란 惡條件下에 놓여 있을 때 白熱電球보다 螢光燈이 電力消費에 節約이 된다해서 은 서울 市

街가 街路燈으로부터 無許可 板子집까지 螢光燈 一色으로 變해버린 視覺的 環境에서 살던 사람으로서 宜當 先進國인 美國도 照明効率が 改良된 螢光燈을 쓰리라고 혼자 一方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큰 錯誤의 原因이었다. 그러면 美國같은 나라에서 特히 家庭에서 왜 照明効率が 改良되고 經濟的인 螢光燈을 使用치 아니하고 舊態依然한 白熱電球를 固守하고 있을까? 여기서 筆者는 어디까지나 電氣專門家가 아닌 門外漢으로서 一方的인 結論을 내려 보았다. 即 事務能率을 考慮한 照明効률에 있어서는 螢光燈은 確實히 改良되고 進歩된 것이겠으나 人間の 休息處인 住宅에 있어서는 亦是 눈부신 螢光燈보다는 溫和하고 아늑한 白熱電球가 좀 더 情緒的이고 安息을 도울 수 있는 照明方法이라는 것이다. 美國의 繁華한 都市에서 郊外의 住宅街로 車를 몰고 나가면 어두어진 숲 속으로 白熱電球의 輝미하고 부드러운 光輝가 視野에 들어올 때 그렇기도 複雜하고 그야말로 機械萬能의 生活——人間이 機械를 使用하는게 아니라 機械에게 人間이 驅使當하는 것 같은 感을 느낄 程度로 太陽가 빠르고 無味乾燥한 美國에도 이러한 田園的이며 情緒的인 面이 있었구나 하는 感을 새삼 느끼게 하였으며 白熱電球의 빛과 밤의 綠陰과의 調和된 對照는 지금도 記憶에 새롭다. 또 한가지 美國人이 家庭이나 特히 레스토랑 같은 데서 螢光燈을 避하는 것은 主食이 肉食이니 만큼 螢光燈 下에서 變色되어 보이는 肉食料理란 보기만 해도 食慾을 잃을 程度이니 不可避 白熱電球를 使用하게 되는 것이며 浴室이나 化粧室에는 아직까지도 亦은 부드러운 빛으로 얼굴을 비쳐 주는 白熱電球를 거울 위에 設置하는 것에서 脫皮치 않고 있다.

初步的이며 常識的인 照明問題에 있어서의 白熱電球와 螢光燈을 比較한 것은 무슨 照明論을 펴기 爲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現代生活에 있어 建築과 電氣가 서로 相對性을 가지고 內在的인 有機性을 發揮하는데 不可分의 關聯性이 있다는 것을 強調하기 爲한 것이며 아울러 電氣會館 設計에 있어 照明的인 問題를 爲始해서 電氣를 主調로 하는 律動的인 不足을 切實히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다.

外國旅行을 한 사람은 누구나 共感이 가겠지만 밤에 飛行機가 都市 上空을 旋回하면서 空陸하려고 할 때나 離陸할 때의 그 都市에서 비쳐 오르는 밤 거

티의 色彩는 旅行者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一種의 形言할 수 없는 甚한 感情을 솟아오르게 한다. 그와 同時에 밤 都市의 色彩가 또한 그 나라 그 都市의 性格을 電氣照明이라는 色彩를 通過해서 無言中에 發揮하기도 한다. 어떤 都市는 움직이지 않는 電氣 廣告만을 法律로 許容하고 있어 아주 靜的인 色彩效果가 나타나는 데가 있는가 하면 (勿論 이것은 香港 같은 都市에서 地上의 道路幅이 좁아서 움직이는 電氣 廣告가 自動車를 運轉하는 사람에게 강한 刺戟을 주기 때문에 事故防止를 爲해서 靜的인 것만을 許容한 例도 있지만) 아주 動的이며 律動的으로 마치 그 都市全體가 밤이란 神秘 속에서 춤추는 것 같은 感을 주는 都市도 있었다. 이러한 差異 外에 輝煌 燦爛한 東洋의인 原色の 夜景都市도 있다. 이러한 것이 한 나라 한 都市의 嚴格한 統制下에서 이루어진 都市도 있고 또는 無秩序하게 亂立한 電氣廣告들이 一種의 不均衡의 美를 나타내고 있는 곳도 있다.

要컨데 各國의 都市가 모두 各己 個性의이며 特徵이 있듯이 우리 나라의 都市 特히 首都 서울만이라도 낮에는 강한 太陽과 부드러운 綠陰에 쌓여 韓國의이면서 어떤 傳統을 가진 現代建築들이 相互의 個性을 尊重하면서도 一面 個個의 特異한 美를 誇示하여 빛나는 都市가 될 것이며 밤에는 밤대로 人間의 가슴 깊이 들어 있는 情緒感을 아낌없이 共感할 수 있는 即 都市의 電氣照明과 人間의 밤의 感情이 完全히 融和되어서 낮에 움직이던 모든 삶이 疲勞感에서 完全히 벗어나 이 나라에서 現代生活를 營爲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心情이 울어날 때가 오기를 筆者는 建築家의 한 사람으로서 또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 마지 않을 뿐이다. 이 꿈의 實現을 期待하려던 建築家는 八等身의 美人을 創造 建立하고 電氣關係 人士는 그 調和된 美人에다 밤을 裝飾하는 華麗한 視覺的인 衣裳을 입혀 주는 것만이 唯一한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書 評〕

「電氣協會誌」
創刊號를 보고

大韓電氣協會가 創立되었다는 消息은 어떤 機會에 듣고 있었으나 「電氣協會誌」라는 雜誌를 처음 접하였을 때 우리 나라의 電氣事業 分野도 마침내 새로운 發展段階에 들어섰구나 하는 強烈한 印象을 받았읍니다.

于先 清楚하고 高尚한 表紙 裝幀에 무척 好感이 있습니다. 一般 大衆誌의 俗惡한 表紙는 論外로 하더라도 數 많은 機關誌나 專門誌들의 生硬하고 無味한 表紙 裝幀을 많이 보아 오던 눈에 이 雜誌는 新鮮하고도 호긋한 感銘을 주었습니다.

電氣가 産業發展과 經濟建設의 基底가 된다는 一般의인 常識 밖에는 별로 아는 바가 없는 電氣事業의 門外漢입니다마는 晝夜로 停電없이 電燈을 켤 수 있고 電氣器具도 制限없이 쓸 수 있게끔 된 昨今 兩年은 確實히 우리 나라 電氣事業의 飛躍의 時期라고 생각합니다. 從前에는 外國製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던 家庭電氣器具까지도 이제는 淸單한 國產品이 續續 生産되어 나오니 더욱 마음 든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電氣人의 大 同團結된 모임으로서 電氣協會가 創立되었고 그

事業의 一環으로 「電氣協會誌」가 그 俊秀한 모습을 滿天下에 나타내게끔 된 것으로 本人은 理解하고 있습니다.

掲載된 글이나 資料를 一一히 읽고 評을 加할만한 案地가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門外漢에게까지도 읽고싶은 口味를 들구어주는 能熟한 編輯 습씨에는 敬意를 표하는 바이으며 誤字誤植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程度의 徹底한 校正에는 實務를 맡으신 분들의 숨은 수고를 눈에 보듯 하였습니다.

끝으로 愆心 같습니다마는 電氣業界 뿐만 아니라 一般 讀者에게도 親近한 빛이 될 수 있는 方向으로 常識과 教養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種類의 글이나 資料를 많이 掲載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例컨데 電氣關係 人士에게는 一旦 常識化되고 一般人也 흔히 無意識中에 頻繁히 쓰고 있으면서도 實上 그 뜻이나 定義 等은 全然 알지 못하는 術語나 技術用語가 많이 있습니다. 一般의인 教養을 爲해서나 日常生活의 便利를 爲해서나 이러한 用語들의 權威있는 解説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非單 本人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욱더욱 發展하셔서 우리 나라 電氣事業의 發展 뿐만 아니라 出版文化 發展에도 크게 貢獻하여 주실 것을 附託드리는 바입니다.

崔 亨 圭

(大韓製糖協會·專務理事)